

8/16/20

설교 제목: 독자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2 장 1-19 절

- (창 22: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관주** 히 11:17
- (창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창 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 (창 22: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 (창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창 22: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창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 (창 22: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 (창 22: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절관주** 창 26:5

-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창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 (창 22: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 (창 22: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갈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 (창 22: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셨으며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해 넘어졌을 때에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브엘세바 화친 조약을 맺은 후 아들 이삭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화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 22: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 년을 기다려 받은 아들이 아닙니까?

나이 100 세에 얻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75 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나 저제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지쳐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해 보겠다고 사라의 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고 하셔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못별 만큼 땅의 티끌만큼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신 제사는 당시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는 가증한 것이니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 18: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 18: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 18: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신 18: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 가족을 벗겨내고 포처럼 각을 떼서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착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 주신 곳으로 갑니다.

(창 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움직인 것으로 보아 밤을 지냈음이 틀림없습니다.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아시고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길을 삼 일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 주신 산이 바라보이자 아브라함은 동행한 두 종들에게 이삭만 데리고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니 나귀와 함께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창 22: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히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 11: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쉽게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나 긴 세월 동안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지키시며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가졌을 때 사라의 몸은 도저히 아이를 낳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경도가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단 둘이 하나님이 알려 주신 산으로 갔습니다.

(창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 22: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가는 도중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이것을 묻고 싶었을 것이나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 당하여 물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번제드릴 곳이 가까와진 마당에 더 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비 아브라함의 가슴은 역장이 무너집니다.

이삭이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기 전에 이삭은 먼저 죽어 번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긴 것입니다.

이윽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일러 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창 22: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이대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모습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극치를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는 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 22: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 세에 얻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당신께 바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릴 번제물을 찾다가 숫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 22: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창 22: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 아브라함은 자신이 말한대로 이삭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살던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 거주했습니다.

(창 22: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 세에 얻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당신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 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